



서울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했고 2013년 개인전 <078404>를 열었다. 2009년 울산옹기엑스포 국제공모전에서 금상, 2010년 한국공예문화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4년 파리의 메종 & 오브제, 시카고 SOFA에 참여했다.

BAE SE JIN 도예가 배세진

누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무뚝뚝한 항아리 하나 만들었을까 싶지만, 실은 무채색 대지에서 잉태한 흙 조각을 무장무장 쌓아놓은 도자 오브제다. 작은 흙 조각 하나하나에 지금까지 만들어온 조각의 개수를 확인처럼 새겨넣으며 도예가 배세진은 자신만의 시간을 기록한다. 공예 조형물이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낼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그의 작품에 먼저 반응한 건 외국의 컬렉터들이다.

글 최혜경 사진 이은숙 text by Choi Hyekyung photographs by Lee Eunsuk



01 그의 개인전 <078404>에서 전시한 '078404_00'. 흙 조각 하나하나에 시리얼 넘버를 새기는 그가 78404번째 조각으로 마무리한 작품이다.



작업 방식이나 결과물이 일반적인 도예의 그것과는 달라 보인다. 언제부터, 어떠한 사유의 결과물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나?

기법적으로는 판성형 기법, 형태적으로는 기(器)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도예와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 끊임없이 숫자를 기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을 좋아했다. 그 희곡을 흙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포조 : 그놈의 시간 얘기를 자꾸 꺼내서 사람을 괴롭히지 좀 말아요. 말끝마다 언제 언제 하고 물어대다니!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냥 어느 날이라고만 하면 됐지. 어느 날과 같은 어느 날 저놈은 병어리가 되고 난 장님이 된 거요. 그리고 어느 날엔가는 우리는 커머거리가 될 테고,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거요. 어느 같은 날 같은 순간에 말시오. 그만하면 된 것 아닌단 말시오? (더욱 침착해지며)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앉아 아이를 낳는 거지. 해가 잠깐 비추다간 곧 다시 밤이 오는 거요.' _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중

제작 방법이 사뭇 궁급하다. 먼저 원하는 흙을 만들고(색깔과 질감도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구조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다음 두께 0.7~1cm 이내, 폭 3~4cm의 흙 판을 만든다. 흙 판을 잘 숙성시킨 후 자르고 붙여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 형태를 완성한 후 천천히 건조시키고 다시 또 천천히 소성한다.

많은 이들이 돌조각으로 알았다가 도자라는 걸 알고 놀란다. 그만큼 질감이 독특한데, 어떻게 표현한 것인가? 꾸덕꾸덕 마른 흙 판에 칼집을 살짝 낸 다음 부러뜨린다. 그 단면이 내 작품을 이루는 조각의 단면이다. 초콜릿을 부러뜨렸을 때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흙 조각에 시리얼 넘버를 찍고(별써 10만 번째를 바라본다), 그 조각을 계속 붙여나가는데, 작가 배세진에게 이런 반복적인 행위,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나는 그다지 미술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 어찌어찌하여 미술을 하게 됐다. 재능이 없으니 부지런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반복 작업이었다. 반복적 행위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성취다. 주로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흙 조각을 붙이면 온몸에 통증이 찾아오지만 그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취감도 찾아온다. 내가 찍는 시리얼 넘버는 작업 도중엔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일 뿐 번호로 인식되진 않는다. 그러다 문득 그 이미지를 숫자로 인식했을 때(가령 그 흙 조각의 번호가 98968, 98969, 98970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동안 부지런히 작업했구나 느끼는 성취감은 대단한 것이다.

<고도를 기다리며> 작품을 보면 특히 더 궁급해진다. '시간'에 천착하는 이유가 있나? 나는 작업을 통해서 내 시간을 기록한다. 작업할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다만 무거운 작품을 들고 옮겨야 할 때를 빼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 시간의 기록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포조의 대사처럼 시간은 계속 흐를 뿐이다. 내가 하는 작업도 시간의 일부다. 기록의 편의를 위해 정수로 기록하지만 1과 2 사이에는 무수한 숫자의 시간이 있다. 그건 어쩌면 흙 조각과 흙 조각 사이의 공간일 수도, 조각을 붙인 후 다음 조각을 붙이기까지의 시간일 수도 있다. 처음 1이라는 숫자로 시작해 현재 10만을 넘어서고 있다. 내 작업에는 끝이 없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번호가 이어지니까.

입체 작업과 평면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평면 작업은 입체 작업의 연장인가? 평면 작업은 입체 작업이 힘들고 지겨울 때 쉬엄쉬엄 하던 작업이었다. 다만 입체와 연관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입체를 바라봤을 때 생각나는 형태를 평면에 옮겨 작업했다. 그런데 요즘 평면 작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서 그 쪽 작업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전시할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평면과 입체 작업을 병행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다.



01 02 흙 판에 칼집을 낸 다음 부러뜨려 만든 거칠거칠한 질감, 그 흙 조각에 사무용 넘버링기로 일일이 찍은 시리얼 넘버. 여기에 그의 이야기가 숨겨 있다.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
03 '고도를 기다리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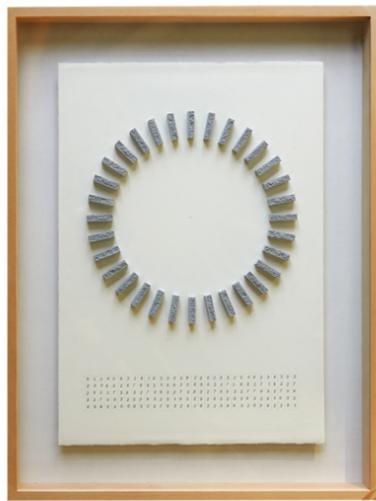


01

시리얼 넘버를 적은 도자 조각들을 지속적으로 붙여 나가는 방식은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함정도 가질 텐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도, 그러나 굳이 작업 방식을 깨거나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진 않겠다. 도중에 하기 싫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못하게 될 때가 오면 다른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지 않을까. 나도 내 작업의 결말이 궁금하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두 주인공이 고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듯이 나도 그냥 조각을 붙일 뿐이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는 거다. 한두 명쯤은 좀 멍청하게 이런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작가 배세진의 작품은 도예라기보다 조소 작품처럼 느껴진다. 스스로도 그 접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나? 꼭 카테고리를 나눠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쪽저쪽의 경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하는 작업은 경계가 더 모호한 지점에 있을 것이다. 다만 나는 공예라는 것이 온전히 사람이 일을 해서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02



03

01 04 그는 이렇게 수도 없이 흙 조각을 붙여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기록한다.
02 03 배세진 작가는 입체와 평면 작업을 함께해 공예 조형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토와 산화물, 석고, 나무, 종이 등 다양한 재료와의 접목을 실험하고 있다.



04

그렇다면 굳이 구분하자면 배세진 작가가 만든 '그것'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나? '제품'이라고 생각하나? 현재는 입체 작업은 작품, 평면 작업은 작품과 제품의 중간쯤인 것 같다. 앞으로 입체 작품에 기능성을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내 입체 작업도 작품과 제품의 중간쯤에 서게 되지 않을까 싶다. 작품이 해외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는데, 작품을 본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 우리나라 관객 또는 사용자의 반응과 어떻게 달랐나? 확실히 한국보다 해외에서 작품 구매가 활발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각 가정마다 주거 환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 작업 같은 것에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는다. 그런 걸 고려해 내 작품의 크기를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도 느낀다.

오브제로서의 장점을 많이 가진 작품이기에 지금보다 더 큰 사이즈의 작품을 원하는 컬렉터들도 있을 텐데, 다음에 2m 정도의 크기로 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흙만으로 만들기에는 가마의 크기 제한이 있어서 별도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위에 조각을 붙이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

작가로서 현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입체 작업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실생활에서 쓸모를 가진 작품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크기를 크게 그리고 더 작게 만든 것, 이와 관련해서 흙 이외의 재료로 변화를 가져보는 것. 이번 공예트렌드페어에선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나? 이번 페어에는 창작공방관의 한 부스로 참여한다. 입체 작품 2점 정도, 평면 작품 5~6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체적인 작품의 톤은 무채색,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적은 수량으로 집중력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예전에 공예나 디자인 관련 페어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 공예트렌드페어, 메종&오브제, 시카고 소파(SOFA) 등에 참여했다. 그중 공예트렌드페어는 내 작업을 대중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외국 전시들은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 페어를 참관 또는 관람한 경험이 스스로에게 미친 영향은? 가장 큰 영향은 동기부여다. 작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건데, 특히 외국 전시에서 많은 이들이 좋아해주고 판매로까지 이어지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속해 있는 갤러리 등이 없다. www.078404.com으로 연락해달라. ☎